

한국무용연구, 34권 1호, pp. 79~103

The Journal of Korean Dance

2016, Vol. 34, No. 1, pp. 79~103

DOI: <http://dx.doi.org/10.15726/jkd.2016.34.1.004>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 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박해정** (숙명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로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써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권 무용(학)과가 있는 6개 대학 한국무용전공대학생 2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 첫째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는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은 성별, 학년,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무용교육, 한국무용, 전통문화인식도, 한국무용수행능력, 한국무용전공자

* 본 연구는 2015년 박해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01066620720@naver.com

I. 서론

신문화로 떠오른 한류열풍을 시작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을 흔히 볼 수 있다(유로, 2013, p.1). 영국 FINANCIAL TIMES는 문화적 트렌드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해외문화홍보원, 2015). 문화예술의 저변과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한국문화에 쏠린 다양한 관심들을 통해 우리는 자국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글로벌 시대인 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에 최근 세계 각 국들은 자국 고유 문화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보람, 2013, p.1). 이는 서로 다른 여러 문화 형태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은아, 2008, p.4). 전통문화가치는 삶과 같은 문화의 본질성, 정신을 회복하고 일깨워 주는 문화의 정신성, 근원에 해당하는 문화의 정체성을 제공한다(황복희, 2015, pp.24-27).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관심도가 서구적 가치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유하나, 2010, p.1).

서울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외래문화의 특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자국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계승, 발전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전통문화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유나, 2015, p.21). 이는 전통문화교육이 글로벌 시대 속 학생들에게 자국 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적 교육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문화 인식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경선, 2002, p.2).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go.kr>)에 공시되어진 2009교육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전통문화

교육은 사회 교과목 내에 축소되어 있으며, 문화재청 산하 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선택적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한국사회에서 매우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교과로 독립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통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문화를 다루는 한국무용의 경우 전통문화 배경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유창경, 2009, pp.18-20), 이를 바탕으로 한 복식, 연희, 예술, 생활, 풍습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무용이 지닌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 외에도 춤의 밑바탕에 민족의 삶이 담겨있으며 자연스러운 몸짓을 통해 우리문화의 놀이적, 오락적, 예술적, 종교적, 음악적, 연극적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총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유현수, 2008, p.12).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용이 지닌 교육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유창경, 2009, pp.12-14; 전우리, 2009, p.16; 유현수, 2008, pp.9-10; 장혜경, 2007, pp.20-2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무용은 기능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유창경, 2009, p.13),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김수진, 2014, p.18). 둘째, 한국무용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한국 춤을 통해 공동체적인 문화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인이라는 공동체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상 교환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유창경, 2009, pp.12-13). 셋째, 한국무용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민족의 한과 정서가 표출되어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한국무용을 통해 개인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으며, 평생 교육의 측면으로 문화유산 전승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장혜경, 2007, p.19).

본 연구의 한국무용수행능력은 한국무용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동작 수행능력과 무용 학습 상황에서 동반되어지는 모든 학습적 상황을 포함한

질적 수준의 무용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윤정현, 2015; 이성화, 2002; 정은정, 2002)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한국전통무용 참가경험, 교수행동 등이 무용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용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용수행능력은 동작 수행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 정보, 내용, 방법, 수행 등 모든 활동과 욕구를 포함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경우 다른 타 전공에 비해 전통문화 교육을 기초로 한 교육이 중요시 된다면 전공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통문화를 다루는 한국무용 전공대학생들에게는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질적인 성장이 병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서지연, 2015, p.53), 세분화된 교과 및 직업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박진희, 2011, p.84), 학과 명칭과 연관하여 특성화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는(이수진, 2011, p.55)점 등이 보고되고 있어 한국무용 전공자의 전공영역에 따른 올바른 무용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통문화교육의 교육적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써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6개 대학의 한국무용전

공 대학생 1학년~4학년으로 선정하였다. 비확률 표집방법 중 유의표집법으로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이중기입, 무기입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7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29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 특성 | 유형 | 빈도(%) |
|---------------|----------|-----------|
| 성별 | 남 | 24(8.2) |
| | 여 | 269(91.8) |
| 학년 | 1학년 | 73(24.9) |
| | 2학년 | 99(33.8) |
| | 3학년 | 58(19.8) |
| | 4학년 | 63(21.5) |
| 무용경력 | 1 - 5년 | 112(38.2) |
| | 6 - 10년 | 128(43.7) |
| | 11 - 15년 | 41(14.0) |
| | 16 - 20년 | 12(4.1) |
| 한국전통춤 경험유무 | 유 | 266(90.8) |
| | 무 | 27(9.2) |
| 한국무용전공지속여부 | 유 | 260(88.7) |
| | 무 | 33(11.3) |
| 합계 | | 293(100) |

2. 연구도구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변인 5문항, 전통문화인식도 13문항, 한국무용수행능력 32문항으로 총 50문항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특성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무용경력,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를 질문하였

으며 측정 문항 수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전통문화인식도

전통문화인식도 설문지는 박선옥(2003), 이경선(2002)의 설문지를 토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윤선희(2006)가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윤선희(2006)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전통문화교육관심 .75, 전통문화관심 .72, 전통문화활용능력 .42로 나타났다.

(3) 한국무용수행능력

한국무용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오현애(2007), 허미영(2001)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무용수행능력개발에 관련된 설문지를 토대로 윤선의(2009)가 재구성한 것과, 라승희(2000)의 연구를 토대로 정은정(2002)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윤선의(2009)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수행자신감 .52, 수행집중 .46, 수행성취 .30로 나타났으며 정은정(2002)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이해능력성취 .91, 실기능력성취 .89, 창작능력성취 .93로 나타났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1) 타당도

(1) 전통문화인식도

전통문화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지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부하량의 기준은 .50이상으로 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한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을 중심으로 요인별 표본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를 통하여 요인분석이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전통문

화인식도 척도는 KMO값이 .862로서 표본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결과 $\chi^2=1078.607(p=.001)$ 로 적합한 요인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표 2>.

표 2. 전통문화인식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 구분 | 전통문화교육관심 | 전통문화관심 | 전통문화활용능력 |
|------------|----------|--------|----------|
| 전통문화인식도 01 | .853 | .209 | .010 |
| 전통문화인식도 02 | .804 | .190 | .039 |
| 전통문화인식도 03 | .715 | .350 | .179 |
| 전통문화인식도 04 | .264 | .901 | .182 |
| 전통문화인식도 05 | .157 | .889 | .076 |
| 전통문화인식도 06 | .133 | .854 | .197 |
| 전통문화인식도 07 | .279 | .813 | .005 |
| 전통문화인식도 08 | .027 | .200 | .886 |
| 전통문화인식도 09 | .162 | .156 | .879 |
| 전통문화인식도 10 | .276 | .003 | .834 |
| 전통문화인식도 11 | .163 | .236 | .824 |
| 전통문화인식도 12 | .273 | .156 | .821 |
| 전통문화인식도 13 | .393 | .190 | .790 |
| 고 유 값 | 4.595 | 2.537 | 1.766 |
| 분 산 % | 20.590 | 19.515 | 13.593 |
| 누 적 % | 20.590 | 40.106 | 53.688 |

KMO=.86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078.607$, $p=.001$

(2) 한국무용수행능력

한국무용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지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부하량의 기준은 .50이상으로 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한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을 중심으로 요인별 표본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를 통하여 요인분석이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무용수행능력 척도는 KMO값이 .943로서 표본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결과 $\chi^2=5844.259(p=.001)$ 로 적합한 요인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다<표 3>.

표 3. 한국무용수행능력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 구 분 | 수행 자신감 | 수행 집중 | 수행 성취 | 이해능력 성취 | 실기능력 성취 | 창작능력 성취 |
|-----------|-----------|----------|----------|------------|------------|------------|
| 무용수행능력 01 | .869 | .073 | .185 | .147 | .253 | .145 |
| 무용수행능력 02 | .853 | .065 | .176 | .246 | .274 | .196 |
| 무용수행능력 03 | .841 | .234 | .201 | .192 | .149 | .099 |
| 무용수행능력 04 | .830 | .044 | .217 | .140 | .096 | .048 |
| 무용수행능력 05 | .829 | .199 | .262 | .163 | .184 | .147 |
| 무용수행능력 06 | .818 | .187 | .194 | .204 | .199 | .263 |
| 무용수행능력 07 | .813 | .248 | .074 | .081 | .244 | .290 |
| 무용수행능력 08 | .212 | .872 | .275 | .261 | .243 | .247 |
| 무용수행능력 09 | .211 | .845 | .144 | .131 | .215 | .254 |
| 무용수행능력 10 | .107 | .813 | .168 | .205 | .076 | .194 |
| 무용수행능력 11 | .199 | .811 | .284 | .278 | .184 | .157 |
| 무용수행능력 12 | .145 | .806 | .274 | .312 | .177 | .081 |
| 무용수행능력 13 | .186 | .214 | .894 | .214 | .195 | .173 |
| 무용수행능력 14 | .236 | .237 | .852 | .081 | .224 | .088 |
| 무용수행능력 15 | .245 | .186 | .811 | .095 | .268 | .217 |
| 무용수행능력 16 | .214 | .112 | .324 | .852 | .214 | .281 |
| 무용수행능력 17 | .113 | .108 | .265 | .849 | .092 | .246 |
| 무용수행능력 18 | .038 | .094 | .194 | .838 | .154 | .281 |
| 무용수행능력 19 | .176 | .217 | .174 | .827 | .204 | .219 |
| 무용수행능력 20 | .214 | .104 | .086 | .811 | .208 | .237 |
| 무용수행능력 21 | .324 | .216 | .253 | .803 | .138 | .091 |
| 무용수행능력 22 | .107 | .076 | .171 | .278 | .861 | .184 |
| 무용수행능력 23 | .218 | .219 | .123 | .201 | .859 | .168 |
| 무용수행능력 24 | .329 | .306 | .132 | .069 | .842 | .244 |
| 무용수행능력 25 | .125 | .278 | .182 | .193 | .810 | .218 |
| 무용수행능력 26 | .198 | .107 | .274 | .177 | .804 | .267 |
| 무용수행능력 27 | .168 | .236 | .096 | .214 | .278 | .889 |
| 무용수행능력 28 | .175 | .199 | .058 | .189 | .194 | .864 |
| 무용수행능력 29 | .194 | .244 | .156 | .185 | .088 | .858 |
| 무용수행능력 30 | .276 | .175 | .142 | .084 | .076 | .842 |
| 무용수행능력 31 | .276 | .245 | .230 | .069 | .248 | .833 |
| 무용수행능력 32 | .112 | .191 | .201 | .207 | .301 | .819 |
| 고 유 값 | 5.018 | 4.568 | 3.695 | 3.281 | 2.003 | 1.997 |
| 분 산 % | 15.681 | 14.275 | 11.545 | 10.252 | 6.260 | 6.241 |
| 누 적 % | 15.681 | 29.956 | 41.502 | 51.754 | 58.014 | 64.255 |

KMO=.86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078.607$, $p=.001$

2)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기준에 따른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전통문화인식도의 신뢰도는 .836으로 하위요인별 전통문화교육관심 .739, 전통문화관심 .762, 전통문화활용능력 .81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무용수행능력은 .95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수행자신감 .845, 수행집중 .772, 수행성취 .721, 이해능력성취 .863, 실기능력성취 .878, 창작능력성취 .90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판단하였다<표 4>.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 변인 | | 문항수 | 신뢰도 | 전체신뢰도 |
|--------------|----------|-----|------|-------|
| 전통문화 인식도 | 전통문화교육관심 | 3 | .739 | .836 |
| | 전통문화관심 | 4 | .762 | |
| | 전통문화활용능력 | 6 | .813 | |
| 한국무용 수행능력 | 수행자신감 | 7 | .845 | .958 |
| | 수행집중 | 5 | .772 | |
| | 수행성취 | 3 | .721 | |
| | 이해능력성취 | 6 | .863 | |
| | 실기능력성취 | 5 | .878 | |
| | 창작능력성취 | 6 | .901 | |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s for SPSS V.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분석방법은 배경변인에 대해 항목별 단순빈도 분포와 백분율을 계산하여 표본의 일반적인 성향을 살펴보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검증으로

써 연구에서 설정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분석하고자 기술통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 -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post-hoc) SNK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한 적률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α 는 .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통문화인식의 차이

성별,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전통문화인식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년, 무용경력에 따른 전통문화인식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SNK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전통문화관심 및 전통문화활용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통문화교육관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 및 무용경력에 따른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전통문화교육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통문화관심과 전통문화활용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춤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하위변인 중 전통문화교육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통문화관심 및 전통문화활용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차이는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통문화인식 차이검증 결과 (표 계속)

| 변인 | 특성 | 전통문화교육관심 | | | | 전통문화관심 | | | |
|-----------------|----------|----------|-----|--------|-------------------|--------|-----|--------|-----------------|
| | | M | SD | t(F) | P (Post-hoc) | M | SD | t(F) | P (Post-hoc) |
| 성별 | 남 | 3.36 | .44 | 1.11 | .266 | 3.27 | .44 | 2.58 | .011 |
| | 여 | 3.24 | .50 | | | 3.00 | .51 | | |
| 학년 | 1(a) | 3.33 | .47 | (3.99) | .009 (b,c,a<d) | 3.09 | .50 | (1.89) | .132 (N,S) |
| | 2(b) | 3.15 | .56 | | | 3.01 | .55 | | |
| | 3(c) | 3.19 | .50 | | | 2.90 | .51 | | |
| | 4(d) | 3.39 | .35 | | | 3.07 | .42 | | |
| 무용 경력 (년) | 1-5(a) | 3.21 | .46 | (3.45) | .017 (b<d) | 3.02 | .53 | (1.78) | .150 (N,S) |
| | 6-10(b) | 3.22 | .55 | | | 2.97 | .47 | | |
| | 11-15(c) | 3.43 | .40 | | | 3.10 | .52 | | |
| | 16-20(d) | 3.50 | .33 | | | 3.27 | .52 | | |
| 경험 유무 | 유 | 3.28 | .48 | 2.20 | .036 | 2.99 | .51 | .22 | .827 |
| | 무 | 3.02 | .58 | | | 2.77 | .46 | | |
| 전공 지속 여부 | 유 | 3.29 | .48 | 2.84 | .007 | 3.05 | .51 | 3.40 | .001 |
| | 무 | 3.00 | .55 | | | 2.79 | .40 | | |

| 변인 | 특성 | 전통문화활용능력 | | | |
|-----------------|----------|----------|-----|--------|-------------|
| | | M | SD | t(F) | P(Post-hoc) |
| 성별 | 남 | 3.17 | .51 | 2.11 | .036 |
| | 여 | 2.95 | .48 | | |
| 학년 | 1(a) | 2.97 | .52 | (2.20) | .088(N,S) |
| | 2(b) | 2.90 | .50 | | |
| | 3(c) | 2.93 | .49 | | |
| | 4(d) | 3.10 | .40 | | |
| 무용 경력 (년) | 1-5(a) | 2.93 | .53 | (.79) | .500(N,S) |
| | 6-10(b) | 2.96 | .45 | | |
| | 11-15(c) | 3.01 | .47 | | |
| | 16-20(d) | 3.14 | .59 | | |
| 경험 유무 | 유 | 3.01 | .47 | 1.90 | .067 |
| | 무 | 3.07 | .59 | | |
| 전공 지속 여부 | 유 | 3.01 | .48 | 3.78 | .001 |
| | 무 | 2.67 | .49 | | |

2.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수행 능력의 차이

성별,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한국무용 수행능력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고, 학년과 무용경력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SNK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하위요인 중 수행자신감, 수행집중,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행성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하위요인 중 수행집중, 수행성취,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행자신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경력 및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차이는 수행자신감, 수행집중,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행성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 차이검증 결과 (표 계속)

| 변인 | 특성 | 수행자신감 | | | | 수행집중 | | | |
|----|------|----------|-----------|-----------------------|---------------------------------|----------|-----------|-----------------------|---------------------------------|
| | | <i>M</i> | <i>SD</i> | <i>t</i> (<i>F</i>) | <i>P</i> (<i>Post-hoc</i>) | <i>M</i> | <i>SD</i> | <i>t</i> (<i>F</i>) | <i>P</i> (<i>Post-hoc</i>) |
| 성별 | 남 | 3.36 | .49 | 3.52 | .002 | 3.33 | .44 | 2.64 | .013 |
| | 여 | 2.99 | .50 | | | 3.08 | .46 | | |
| 학년 | 1(a) | 3.05 | .50 | (1.50) | .216 (<i>NS</i>) | 3.17 | .51 | (3.85) | .010 (<i>c,b<a,d</i>) |
| | 2(b) | 3.05 | .51 | | | 3.04 | .47 | | |
| | 3(c) | 2.89 | .52 | | | 2.98 | .38 | | |
| | 4(d) | 3.04 | .51 | | | 3.22 | .42 | | |

| | | | | | | | | | |
|-----------------|--------------|------|-----|-------|-----------|------|-----|--------|-----------|
| 무용 경력 (년) | 1-5 (a) | 2.98 | .50 | | | 3.09 | .47 | | |
| | 6-10 (b) | 3.00 | .53 | | | 3.07 | .45 | | |
| | 11-15 (c) | 3.11 | .42 | (.85) | .467(N,S) | 3.17 | .45 | (1.10) | .349(N,S) |
| | 16-20 (d) | 3.13 | .63 | | | 3.27 | .52 | | |
| 경험 유무 | 유 | 3.01 | .51 | | | 3.10 | .46 | | |
| | 무 | 3.07 | .44 | -.62 | .538 | 3.06 | .47 | .46 | .651 |
| 전공 지속 여부 | 유 | 3.05 | .52 | | | 3.12 | .46 | | |
| | 무 | 2.79 | .38 | 3.51 | .001 | 2.90 | .36 | 3.26 | .002 |

| 변인 | 특성 | 수행성취 | | | | 이해능력성취 | | | |
|-----------------|----------|------|------|--------|-----------------------|--------|-----|--------|-----------------------|
| | | M | SD | t(F) | P (Post-hoc) | M | SD | t(F) | P (Post-hoc) |
| 성별 | 남 | 3.18 | .50 | | | 3.34 | .49 | | |
| | 여 | 3.01 | .56 | 1.60 | .122 | 3.00 | .50 | 3.22 | .003 |
| 학년 | 1(a) | 3.15 | .57 | | | 3.19 | .55 | | |
| | 2(b) | 3.02 | .54 | | | 2.95 | .49 | | |
| | 3(c) | 2.79 | .51 | (5.30) | .001 (c<b, d,a) | 2.93 | .49 | (4.21) | .006 (c,b, d<a) |
| | 4(d) | 3.09 | .56 | | | 3.06 | .48 | | |
| 무용 경력 (년) | 1-5(a) | 3.04 | .55 | | | 3.05 | .51 | | |
| | 6-10(b) | 2.96 | .59 | | | 2.96 | .50 | | |
| | 11-15(c) | 3.13 | .51 | (1.27) | .286(N,S) | 3.17 | .54 | (2.07) | .104(N,S) |
| | 16-20(d) | 3.11 | .38 | | | 3.15 | .51 | | |
| 경험 유무 | 유 | 3.02 | .55 | | | 3.04 | .51 | | |
| | 무 | 3.03 | .62 | -.13 | .900 | 2.95 | .55 | .81 | .427 |
| 전공 지속 여부 | 유 | 3.05 | .55 | | | 3.06 | .51 | | |
| | 무 | 2.84 | .559 | 1.92 | .062 | 2.83 | .42 | 2.87 | .006 |

| 변인 | 특성 | 실기능력성취 | | | | 창작능력성취 | | | |
|-----------------|----------|--------|-----|--------|-----------------------|--------|-----|--------|-------------------|
| | | M | SD | t(F) | P (Post-hoc) | M | SD | t(F) | P (Post-hoc) |
| 성별 | 남 | 3.47 | .44 | 4.59 | .001 | 3.47 | .46 | 5.54 | .001 |
| | 여 | 3.03 | .55 | | | 2.91 | .57 | | |
| 학년 | 1(a) | 3.21 | .60 | (3.03) | .030 (c,b, d<a) | 3.13 | .59 | (3.36) | .019 (c,b,d<a) |
| | 2(b) | 3.02 | .53 | | | 2.90 | .59 | | |
| | 3(c) | 2.94 | .51 | | | 2.84 | .51 | | |
| | 4(d) | 3.08 | .54 | | | 2.94 | .61 | | |
| 무용 경력 (년) | 1-5(a) | 3.09 | .56 | (1.70) | .168(N,S) | 2.96 | .61 | 1.13 | .339(N,S) |
| | 6-10(b) | 3.00 | .54 | | | 2.90 | .57 | | |
| | 11-15(c) | 3.18 | .51 | | | 3.09 | .51 | | |
| | 16-20(d) | 3.07 | .64 | | | 2.97 | .74 | | |
| 경험 유무 | 유 | 3.07 | .55 | .07 | .944 | 2.94 | .59 | -1.55 | .132 |
| | 무 | 3.06 | .53 | | | 3.11 | .55 | | |
| 전공 지속 여부 | 유 | 3.01 | .54 | 2.98 | .005 | 2.98 | .59 | 3.07 | .004 |
| | 무 | 2.79 | .56 | | | 2.73 | .43 | | |

3.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과 한국무용수행능력 간의 상관계 분석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과 한국무용수행능력이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문화인식의 하위요인인 전통문화교육관심, 전통문화관심, 전통문화활용능력과 한국무용수행능력의 하위요인인 수행자신감, 수행집중, 수행성취,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7>.

표 7. 한국전통문화인식과 한국무용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 | | | | | | | | |
| 2 | .519** | | | | | | | | |
| 3 | .522** | .617** | | | | | | | |
| 4 | .527** | .538** | .582** | | | | | | |
| 5 | .564** | .576** | .550** | .662** | | | | | |
| 6 | .498** | .525** | .460** | .601** | .673** | | | | |
| 7 | .556** | .575** | .553** | .659** | .697** | .626** | | | |
| 8 | .532** | .508** | .501** | .717** | .641** | .646** | .784** | | |
| 9 | .549** | .558** | .525** | .697** | .610** | .554** | .671** | .726** | |

$p < .01$

IV. 논의

1.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

첫째,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전통문화관심과 전통문화활용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변인 모두에서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현주(2009)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인식도에 대한 여자의 평균이 남자의 평균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부분과 연구결과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는 성별의 구체적 대상에 따라 전통문화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차이를 밝혀 전공영역에 맞는 효과적인 전통문화교육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전통문화교육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학년 집단이 가장 높은 교육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한경진(2009, pp.23-28)의 선행연구에서 중학교 고학년 집단이 저학년 집단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 집단이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과 교육열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무용이라는 전공적 특성이 반영되어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학년별 전공영역에 적합한 전통문화 교육적 기회 확대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무용경력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전통문화교육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용경력이 가장 높은 집단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무용경력이 높을수록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 무용에 대한 경험이 전통문화교육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윤선희(2006, pp.39-41)의 선행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무용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전통문화인식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통문화인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전통문화교육이 더해진다면 전공수행능력 향상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넷째,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전통문화교육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통춤을 경험한 전공대학생들의 경우 한국전통춤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보다 전통문화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높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김정희(2010, pp.39-41), 이정선(2002, pp.49-56)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무용 경험 활동이 전통문화인식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전통문화인식 향상에 있어 한국무용이 교육적 기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는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무용전공을 지속하겠다는 집단이 지속하지 않겠다는 집단보다 전통문화교육관심, 전통문화

관심, 전통문화활용능력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무용전공을 지속하겠다는 집단이 한국무용전공에 보다 깊은 애착과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무용전공을 통한 경험활동이 전통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차이

첫째, 성별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은 하위요인 중 수행자신감, 수행집중,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무용수행능력의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은 평균이 나타났다. 이는 이로사(2010, pp.8-9)의 선행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자아지향성을 갖고 있어 비교적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무용수행능력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수행자신감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윤선의(2009)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무용수행능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수행집중, 수행성취,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행집중의 경우 4학년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는데 이는 김해주(2013, p.33)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용수행능력 차이에 있어 고학년이 높게 나타난 점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집중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수행성취,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는 모두 1학년 집단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1학년이 새로운 환경의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욕구가 다

른 학년에 비해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무용경력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차이는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윤정현(2015, pp.36-37)의 선행연구에서 무용경력이 무용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무용경력은 전공분야가 이미 정해진 대학생의 경우 과거의 경력보다는 현재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열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차이는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전통춤 경험이 한국무용전공자의 한국무용수행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적인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무용수행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한국전통춤 교육에 있어서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수행자신감, 수행집중,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무용전공을 지속하겠다는 집단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무용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한국전통문화인식의 하위요인과 한국무용수행능력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경우 한국무용수행능력 향상에 있어 한국전통문화 인

식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김정희, 2010; 성선제, 2008; 백희숙, 2006)의 한국전통문화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한국전통문화인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국무용전공대학생들에게 전통문화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무용전공대학생들에게 전통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춤을 습득하고 표현해나가는 한국무용수행능력도 질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 예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로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써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무용전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 학년, 무용경력,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전통문화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전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 학년, 무용경력, 한국무용전공 지속여부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전통춤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무용수행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한국무용전공자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 간의 관

계 규명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문화인식의 하위요인인 전통문화교육, 전통문화관심, 전통문화활용능력과 한국무용수행능력의 하위요인인 수행자신감, 수행집중, 수행성취, 이해능력성취, 실기능력성취, 창작능력성취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전통문화인식도와 한국무용수행능력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한국문화를 다루는 한국무용전공대학생의 경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더해진다면 한국무용수행능력에 보다 높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전공자의 전통문화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수진(2014).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 교과현황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10). 은율탈춤 학습을 통한 초등학생의 전통문화 인식도 변화.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주(2013).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존중감 및 무용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승희(2000). 대학무용(학)과의 창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옥(2003). 탈춤수업이 여중생의 한국무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2011). 대학 무용(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희숙(2006). 전통문화소재를 활용한 통합미술교육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 미적 반응,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지연(2015). 대학무용교육 현황을 통한 무용비평교육의 활성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선제(2008).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역사개념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애(2007). 무용수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요인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 로(2013). 한류문화콘텐츠 선호도가 한국 관광이미지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을 대상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창경(2009). 한국무용정신 가르치고 배우기 : 무용교사의 실천과 전공학생의 인식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하나(2010). 제7차 중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문화 내용 분석 :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수(2008).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의(2009). 대학 무용전공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무용수행능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희(2006). 중학교 한국 민속무용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인식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현(2015).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가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2002).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리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로사(2010).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성취목표성향과 무용 참여동기와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1, 1-14.
- 이보람(2013). 가정과 교사의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화(2002). 한국전통무용 참가경험이 한국창작무용 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11). 대학 무용(학)과 명칭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2008). 전통무용 조기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초·중등 학생과 전공자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2007). 대학 사회교육원의 한국무용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우리(2009). 한국무용의 공연문화산업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2002). 무용 실기수업의 교수행동이 학생의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2009). 초등학생의 민속 춤 프로그램 참여가 문화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유나(2015). 통합적 전통문화체험 교육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의식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진(2009). 전통생활문화학교육 및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교 적응 : 광주광역시 여중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미영(2001). 무용동작 수업에서 웹기반 3차원 애니메이션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복희(2015).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 [검색일 2월 2일]

해외문화홍보원(2015.5.21.). “한류, 한국경제의 화수분 될까?”. 정책뉴스, http://www.korea.kr/policy/cultureView.do?newsId=148795416&call_from=naver_news. [검색일 2월 5일]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Studies Undergraduates' Level of Awarenes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heir Competency in Performing Korean Traditional Dance

Park, Hae-Jung(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relates to Korean traditional dance studies undergraduates' level of awarenes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heir competency in performing Korean Traditional dance. A total of 293 questionnaires have retrieved. For the research processing, frequencies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post-hoc SNK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applied. As a result, Firs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warenes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taking into account the demography of Korean traditional dance undergradu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level of awarenes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x, academic year, dance career. experien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level of commitment to Korean traditional dance studies. Second, the difference in competency in performing Korean traditional dance taking into account the demography of Korean traditional dance undergradu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with respect to competency in performing Korean dance for each sex, academic year, dance career and level of commitment to Korean traditional dance studies except experien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Third, a correlation analysis on the undergraduates' level of awarenes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ompetency in performing Korean traditional d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s were found.

Key words : dance education, Korea dance, traditional culture awareness, Korea dance performance, Korea dance majors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3일

논문심사일: 2016년 03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9일